



수산 · 환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137-8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Tel. 02) 2105-2756 / Fax. 02) 2105-2759

목 차 : 지구촌 이슈 / 주요뉴스와 분석 / 지역포커스 / 간추린 지구촌 소식



지구촌 이슈

일본의 新 어항어장정비계획

■ 5년간 3개 중점과제 추진

- 일본의 어항어장정비계획은 지금까지의 정비 실태, 경제·재정상황의 변화와 새로운 수산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게 됨
 - 새롭게 조정된 수산기본계획과의 밀접한 연대를 바탕으로 어선어업 구조 개혁이나 산지시장 통폐합을 통한 시장기능 강화 등 일련의 대책과도 보조를 맞추면서 수산시책을 추진함
- 어항어장정비계획의 추진기간은 성과목표를 엄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으며
 - 효율적·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2007~2011년)간 추진할 중점과제를 3개로 압축하고 중점과제별로 성과목표를 상세하게 설정하였음

■ 인근수역 수산자원의 생산성 향상

- 자원량이 낮은 수준에 있는 어종을 중심으로 기르는어업 및 자원관리와 연대하고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인근 수역의 어장을 정비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생육환경을 조성함
 - 이 때 모니터링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물의 상호작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성과목표는 수산기본계획에서 설정된 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장 정비를 통해 향후 5년 뒤 수산물 생산을 약 14.5만 톤 가량 증산하는 것임
 - 어장 정비를 통해 설정된 목표 증산량은 수산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증산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며, 그 중에서도 이번 사업기간인 5년간의 분담량을 목표로 설정한 것임
 - 이는 약 230만 명의 수산물 소비량에 해당되는 것임
-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어초 및 증양식장의 정비, 어장 회복을 위한 퇴적물 제거, 해조장·간석지의 보전 등이 선정되었음

■ 국제경쟁력 강화와 힘있는 산지 조성

- 수산물 생산, 양륙, 유통·가공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공급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생산비용 축소 및 선도유지, 위생관리에 중점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와 소비자가 신뢰하는 산지 조성의 실현을 도모함
 - 이와 함께 재해가 발생한 뒤에도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정비에 힘써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산지 조성을 모색함
- 성과목표로는 수산물유통 거점이 되는 어항에서 거래되는 수산물 중 엄격하게 관리된 수산물의 출하비율을 23%(2004년 기준)에서 약 50%까지 향상시키고
 - 또한 내진 기술이 적용된 어항 비율을 9%(2004년 기준)에서 40%까지 증가시키기로 함
- 세부사업으로는 주요 산지시장을 보유한 수산물유통 거점지구의 정비(약 150지구)와 생산활동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지구의 정비(약 485 지구) 등이 선정됨

■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어촌 형성

- 어촌지역에 관련해서는 어촌의 위생환경 개선, 어촌의 방재력 강화 등 환경 및 재난에 대비한 대응력 강화가 중점과제로 선정됨
- 중점과제의 성과목표로는 어업집락배수시설 정비를 통해 어촌의 처리인구비율을 기존의 35%(2004년 기준)에서 60%까지 향상시키고
 - 수산기반을 정비함으로써 방재기능이 강화된 어촌의 인구비율을 21%(2004년 기준)에서 30%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정함

- 세부사업으로는 피난지·피난로 등 방재관련 시설 및 어업집락배수시설 등의 정비가 채택됨

■ 법률 규정에 근거, 필요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

- 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시책의 연대를 통해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의 역할에 적합한 대응 추진, 시책의 집중화·중점화, 기존 자원의 유효활용과 갱신비용의 축소대책 추진 등을 도모하며
 - 또한 민간 자금·능력의 활용, 사업평가의 엄정한 적용과 투명성 확보, 공공사업의 품질 확보와 적절한 비용 축소 등도 고려하기로 함
- 향후 재정 상황, 각 시책의 추진 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어항어장정비법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



주요뉴스와 분석

■ 일본 수산회, 수산물 관련 유통 및 소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일본수산회는 수산물소비개선사업(2006년도 수산청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슈퍼마켓의 선어판매 실태 및 향후 과제'와 '수산물 소비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슈퍼마켓의 수산물 판매 실태 등에서는 어류 판매장의 판매 동향과 소비자의 구매 실태 및 변화, 판매측의 대응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 향후 수산물 판매 증가를 기대하는 업체가 전체의 68%를 차지하였는데, 특히 수산물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횡감, 반찬류, 반조리 제품·조리완제품 등이 순조롭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또한 소비자가 수산물 구매시 산지와 선도, 제조일자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판매측에서도 명확한 산지표시, 손질 서비스 강화, 품목 증가 등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일본 수산물 소비 관련 조사 결과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간편함의 강조와 판매측의 메뉴 제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수산물의 구입 빈도를 늘이기 위해서는 '절단, 지느러미 제거 등 밑손질을 마친 상품 구비'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육류와 차이 없는 가격 수준', '가게의 손질 서비스' 등으로 전처리와 같은 서비스 측면의 요구가 많았음
 - 자녀의 수산물 소비를 늘이기 위해서는 '자녀가 좋아할 만한 수산물 요리 레시피 확충'이 전체의 67.3%를 차지하였고, 육류 요리와 차이 없는 볼륨감을 얻을 수 있는 요리 레시피 등 메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소리도 많았음
 - 또한 수산물 요리의 조리빈도 향상을 위해서는 '조리기구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 정보 제공' 및 '뒷처리가 손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정용 생선구이기의 보급' 등 가정 내에서 수산물 요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조리빈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 최근 일본에서는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관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각 관계기관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같이 다양한 접근을 통해 문제의 해결에 고심하고 있음

■ 베트남, 수산 가공업 중점 육성

- 베트남은 수산물 가공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통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수산물 가공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계획으로 있음
 - 이러한 목표는 베트남 수산물 수출 생산협회(Vietnam Association of Seafood Exporters and Producers, VASEP)의 2007~08년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임
- 6월 중순에 개최된 하노이 회의에서 VASEP의 부대표인 트루엥 딘 호(Truong Dinh Hoe)는 수산물 가공 생산 라인과 가공품 품질 관리 향상을 위해 새로운 생산 설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 또한 수산물에 항생물질과 각종 불순물 함유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자에서부터 가공 판매업자까지 모든 수산 관계자들이 위생 관리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VASEP은 수산 가공품의 식품안전 기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현대식 실험실 건립에 여러 도움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음
 - 또한 VASEP은 가공 공장을 완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요청할 것이며
 - 이와 더불어 자국 수산부(Ministry of Fisheries)와 함께 수출-수입 품목에 대한 식품 위생 안전 기준에 대한 제도를 재정비할 것이라 발표하였음
- 베트남은 이전과는 달리 각종 제도와 최신 기술 및 장비 도입을 통해 고부가가치 가공 수산물 수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생 기준 역시 국제적 수준으로 발 맞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미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COOL) 시행 앞두고 의견 수렴 기간 거쳐

- 미국 농무부는 어류 및 패류의 원산지 의무 표시제¹⁾(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를 시행하기 위한 최종 승인을 앞두고 6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public comment period)을 마련하였음
 -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4년 10월부터 연방규격집(Federal Regulation)에 어류 및

1) 식품에 관한 의무적 원산지 표시제는 2002년 5월 부시 대통령이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를 법제화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 수산물 및 기타 부패 가능식품(perishable)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요구하였음. 그러나 2004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의무 시행을 2006년 9월 30일로 연기하였으며, 수산물은 예외적으로 2008년 9월 30일까지로 연기하였음

패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잠정 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만들어 시행해 왔으며, 이번 60일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최종 규칙으로 승인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임

- 농무부의 농산물 마케팅서비스(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는 지난해 11월에도 IFR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예 : 정보 수집 및 정보 기록을 위한 장비 구입 및 유지 비용)에 관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음
- IFR은 어류 및 패류의 판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 수산물의 원산지 및 생산 방법을 반드시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2년여 기간동안 시행해 오는 동안업계 관계자들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원산지 의무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큰 혼란을 야기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향후 미국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근거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됨



지역 포커스

■ 1~5월, 산둥성 수산물 수출 13% 증가

- 1~5월에 산둥(山東)성의 수산물 교역량과 금액은 각각 92만 톤, 20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9.7% 늘었음
 - 이 중 수산물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41만 8,000톤, 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9.8% 늘었고
 - 수산물 수입량과 금액은 각각 50만 2,000톤, 7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9.6% 늘었음
-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으로, EU, 미국, 한국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1~5월, 산둥성의 주요 국가별 수산물 수출 】

구 분	수 출 량		수 출 금 액	
	물량(만 톤)	증감율(%)	금액(억 달러)	증감율(%)
일본	12.2	7.5	4.7	5.7
EU	9.8	6.1	3.0	9.9
미국	5.8	19.8	1.9	19.8
한국	7.4	-1.0	1.4	-8.6

■ 1~5월, 텐진시 어분 수입 49.5% 증가

- 텐진(天津)시 세관에 따르면, 1~5월에 텐진시의 어분 수입량과 금액은 각각 2만 5,000톤, 2,70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49.5% 늘었음
 - 어분 수입가격은 톤 당 1,06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유기업의 어분 수입량은 전체 어분 수입량의 92%를 차지한 2만 3,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었음
- 반면 주요 수입대상국인 페루산 어분 수입량은 1만 9,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1~5월, 샤먼시 뱀장어 수출 21.4% 늘어

- 샤먼(廈門)시 세관 통계에 따르면, 1~5월에 샤먼시의 뱀장어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8,757톤, 1억 달러어치로 전년 동기 대비 36.6%, 21.4% 늘었음
-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으로, 수출량과 금액이 각각 7,694톤, 9,084만 달러에 달해 뱀장어 전체 수출의 87.9%, 87.4%를 차지하였음
 - 그 외에 올해부터 독일,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로 수출하게 되었는데, 수출량과 금액이 130톤, 129만 달러이었음
- 이에 샤먼시의 뱀장어 가공기업은 향후 유럽 수출용 뱀장어제품을 개발하여 유럽 시장의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음

■ 일본 하치노헤의 개혁형 어선도입 계획 승인

- 어선어업개혁 추진 집중 프로젝트 중앙협의회는 하치노헤(八戸) 지역의 개혁형 어선도입 계획안을 승인하였음
 - 지역 프로젝트가 승인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협의회는 승인 결과를 수산청장에게 보고, 청장의 동의를 거친 뒤 인정증을 교부하게 됨
-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대형선망 어선이 새롭게 건조되게 되는데, 소요경비 중 일부는 수산청이 신설한 “어선어업구조개혁 종합 대책사업”에 근거하여 국가가 부담함

■ 후쿠오카 선어시장, 중국산 선어반입 감소세

- 지난 1~5월 후쿠오카(福岡) 선어시장 내 중국산 선어 반입량은 3,194톤, 12억 7,700만 엔(252척)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반입물량 감소의 주요인으로는 중국 내 내수 확대와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을 들 수 있는데, 글로벌화의 가속으로 일본 이외에 수출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기업, 활다랑어 상품화 추진

- (유)생선기획은 양식다랑어를 침으로 마취한 ‘쾌면 다랑어’의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다랑어를 활어 상태로 출하하는 활다랑어 전용차까지 개발한 것으로 발표함

- 이는 생선기획과 미에(三重)현 양식다랑어업자인 세이요(清洋)수산, 도쿄 수산도 매업자인 水産健兒 3개 회사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상품화 직전의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간추린 지구촌 소식

■ 말레이시아, 이란과 수산 협력 강화

- 말레이시아 수산물 관계자는 5일간의 이란 방문 중에 양국간 수산업 협력에 관하여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였음
 - 이란 양식 산업은 수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최근에 가장 발전이 빠른 산업으로, 이러한 양국간 협력 강화는 수산업 발전을 강화시키고 수산물 생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태국, 새로운 새우시장 개척 노력

- 태국 새우 생산업자들은 새우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새우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자국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음
 - 새우 가격 하락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 가격이 생산비용 이하로 하락하고 있으며 게다가 태국산 새우가격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산 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이에 따라 새우 생산업자들은 러시아, EU, 일본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통한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하였음

■ 필리핀, 저온 유통체계 개선

- 필리핀은 수산물을 포함한 신선 식품에 대한 저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온 유통체계(cold chain system)를 개선할 예정으로 있음
 -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DA) 관계자는 효율적인 유통체계 연계 수단 수립과 수산물을 최종 소비자까지 손실 없이 신선한 상태로 유통시키기 위해 1천 46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통해 최신의 냉장 저장 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음

■ 영국, 양식 패류에 대한 유기 수산물 기준 마련

- 영국의 환경식품 및 지방행정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는 최초로 양식 패류의 유기 수산물 인증 기준(organic standards)을 마련하였음
 - 인증 기준에 따르면 패류 생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wastes)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스코틀랜드 통합 마케팅부의 마이클 로렌슨 부장은 유기 수산물 인증 기준 마련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유기 수산물의 높은 품질 수준을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페루, 냉동 수산물 및 어분 수출 늘어나

- 올 4월까지 페루의 수산물 수출은 총 11만 6,900톤(6억 8,300만 달러)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5.8% 늘었음
 - 이 중 냉동 수산물의 수출량은 34,700톤으로 대부분이 오징어, 대구, 고등어, 뱀장어, 새우, 가리비, 문어 등이며 주로 중국, 스페인, 한국, 이탈리아, 일본 등지로 수출되었음
 - 사료 및 어분의 수출은 총 72,700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4.8% 늘었는데 주로 중국, 독일, 일본, 베트남, 캐나다, 대만, 스페인, 인도 등지로 수출되었음

■ 러시아, 수산물 수입 증가로 수산물 수입 규제 나서

- 러시아 연방의 관세청(Federal Customs Service)이 올 4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수산물 수입이 1억 3천만 달러에 달하자 4월 20일부터 스페인,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음
 - 6월 1일부터 한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도 금지되고 있으며, 내달에는 칠레산 수산물의 수입도 금지할 것으로 보임